

# 초기 청소년기의 방과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 After-School Activities of Pre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s and Social Development

구미1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 미 해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옥 경 희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천 희 영

Dept. of Childhood Education, Kumi 1st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Kim, Mee Hae*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Ok, Kyung Hee*

Dept. of Child Education, Ko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un, Hee Young*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After-school activities of 817 7th grade children from Kwangju, Busan, and Kumi were studied to determine relations with (a) child, family and contextual variables (b) child'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development.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extracurriculum activities and TV watching than other after-school activities. After-school activities were related to child's, parent's and contextual variables. Child's characteristics related to after-school activities were sex, impulse control, mastery and self-care. Family's characteristics related to after-school activities were mother's employment, emotional support, control, monitoring and SES. Region and regional safety were related to after-school activities. Some of after-school activities were related child'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academic activities have a positive and powerful effects on child'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방과후 활동(after-school activity),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사회적 발달(social development),

## I. 서론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은 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영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은 주로 취학전 자녀에게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학령기 자녀들을 다루는 데는 소홀하였다. 최근 신체적·심리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기성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아를 정립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창조하는 가능성을 가짐과 동시에 비사회적, 비타협적 행동을 낳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다(오치선, 권일남, 1999). 특히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초기 청소년들은 부모나 성인의 감독없이도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어 방과후 시간에 일탈행동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지면서(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초기 청소년기의 아동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방과후 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자기보호 아동에 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한명희, 1992; Galambos & magg, 1991; Guerney, 1991; Long & Long, 1983; Mueller 등, 1991; Posner & Vandell, 1994; Richards & Duckett, 1994; Steinberg, 1986). 자기보호 아동들이 여러 영역에서 보이는 발달 정도는 부모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양육의 결핍 때문에 야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자 지내는 동안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초기 청소년 시기는 최소한의 자기보호가 가능하며, 부모나 성인의 감독없이도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할 기회를 점차 많이 갖기 때문에 방과후 경험의 역동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Medrich & Marzke, 1991; Pettit 등, 1999 재인용).

방과후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문제나 학업성취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Fuligni 등, 1995; Huston 등, 1999; Pettit 등, 1997; Posner & Vandell, 1994, 1999; 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 Burton 등, 1995; Patterson 등, 1991) 어떤 특성들이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보이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동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들로는 아동의 성과 연령,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나 부모의 감독(monitor) 정도, 환경적 요인으로서 이웃의 안전성(Posner & Vandell, 1999; Pettit 등, 1997; 1999; Stattin & Kerr, 2000) 등이 있다. 방과후 활동을 다룬 연구들은 아동이 방과후에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가가 이들의 적응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변인들이 이 활동의 참여에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연구의 대상과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과후 활동을 다룬 연구는 그 수와 다루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취업모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기관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학교기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에 초점을 두어 방과후에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권일남, 2000; 서영숙, 박영애, 허정경, 2000; 오치선, 권일남, 1999; 이영자, 이종숙, 이욱, 신은수, 이정욱, 1999; 이욱, 1993; 한순옥, 1996). 이들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정규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취업모 자녀인 경우 35-45%의 아동이 방과후에 성인의 보호없이 3-7시간 가량을 혼자서 생활하며, 60% 이상의 자녀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수강의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방과후에 집에 가도 부모나 성인이 없어서 학원을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한순옥, 1996). 이나마 학원 등의 대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아동은 방과후 시간을 모두 자기 혼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직은 학령기 아동들의 방과후 시간

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아동의 적응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인 초기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가장 짧게 지나가는 시기이기는 하나 빠른 신체적 변화와 급속하게 확대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적응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많아지기도 하나 또래집단의 영향 또한 많이 받아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이 도출되는 시기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사춘기의 시작이 더욱 빨라지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 더욱 긴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날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에 초점을 두어 이 활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청소년, 가족 및 이웃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과후 활동에서의 차이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 가족 및 이웃의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은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자기보호 아동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방과후 활동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한명희, 1992; Galambos & Maggs, 1991; Guernsey, 1991; Long & Long, 1983; Muller 등, 1991; Posner & Vandell, 1994; Richards & Duckett, 1994; Steinberg, 1986)은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중속변인으로 취급하여, 자기보호 아동과 성인보호 아동간에 방과후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자기보호 아동들이 성인이나 보육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보다

TV를 더 오래 시청하고(Guerney, 1991; Muller 등, 1991; Posner와 Vandell, 1994; Richards와 Duckett, 1994), 학교과제에 쏟는 시간이 적다고 한다(한명희, 1992). 자기보호 아동의 위와 같은 활동결과는 학업성적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Long & Long, 1983; Posner & Vandell, 1994),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며(Long & Long, 1982),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기도 한다(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아동, 특히 초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과후 활동이 학업성취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Bell, 1997; Fuligni 등, 1995; Huston, 1999; Marshall 등, 1997; Petit 등, 1999). 다양한 사회계층의 도시아동들의 방과후 시간 사용과 행동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한 Marshall과 그의 동료들(1997)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의 저학년 아동들은 방과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모나 돌보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있으며, 아동이 방과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들은 친구와 상호작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TV 시청에 시간을 덜 보냈지만, 이 아동들이 학문적인 활동이나 인지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친구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TV 시청을 덜하는 정규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내면적인 문제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에 차이를 가져오는 방과후 활동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활동에 참여했을 때는 성적이 좋았고(Huston 등, 1999; Pettit 등, 1997; Posner & Vandell, 1999), 바깥 놀이나 TV 시청을 많이 했을 때는 성적이 낮았다(Fuligni & Stevenson, 1995; Long & Long, 1983; Posner & Vandell, 1994; 1999; Huston 등, 1999)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적응과 방과후 활동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행동은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를 높이고

(Galambos & Maggs, 1991),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아동들은 사회성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키고(Burton 등, 1995; Patterson 등, 1991; Posner & Vandell, 1999), 집안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역시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부족하여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못하는(Bell, 1997)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방과후 활동을 다룬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Fuligni와 Stevenson(1995)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능력에서 문화간 차이를 방과후 시간사용에서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계의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들보다 학교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에 따라 수학적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문화 모두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적인 일을 하거나 TV를 많이 시청할 때, 혹은 친구와 많이 어울려 다닐 때 학문적 성취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기 아동의 방과후 보호형태와 방과후 활동을 다룬 연구들(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에 의하면 성인의 감독 없이 자기보호를 하는 청소년들은 비행친구와 더 많이 어울리고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동료접촉이 학교에서의 외현적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Pettit와 그의 동료들(1999)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성인의 감독없이 친구와 더 많이 어울려 다닐수록 학교에서의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지만, 이 관계의 크기는 부모의 감독(monitoring)이나 이웃의 안전성 정도에 따라 다양하였다. 즉 비교적 안전하지 않은 이웃환경을 가지고 있고 부모 감독이 적은 아동들이 성인감독 없이 친구와 휩쓸려 지낼 때 문제행동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후 경험의 영향은 더 광범위한 가족, 사회적인 생태학적 맥락 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보다 더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질적인 자료를 수집한 Bell(1997)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하였다. 자기보호는 많은 아동들에게 외로운 경험이지만, 어떤 아동들에게는 자유롭고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방과후 시간 사용을 아동이 보통 무엇을 하느냐에 기초해서 범주화하고 있는데, 아동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즉 부모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조건 등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방과후 활동에 상당한 자유를 가지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주 좁은 반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과후 시간을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가가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문제나 학업성취와 관련된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아동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한 연구들은 비록 각기 다른 연령층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변인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변인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Posner와 Vandell(1999)은 아동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아동과 가족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 방과후 활동이 아동의 사회, 정서, 학문적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 도시 아동들에게서는 인종, 성, 가족구조, 연령, 형식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각각 아동의 방과후 활동에서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변인들로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온 변인은 아동의 성별인데,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운동지도를 더 많이 받고(Fuligni 등, 1995; Medrich 등, 1992),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을 더 많이 하는데 비해(Fuligni 등, 1995; Huston 등, 1999; Posner & Vandell, 1999), 여아들은 숙제나 집안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Fuligni & Stevenson, 1995; Huston et al, 1999; Posner & Vandell, 1999). 아동의 연령을 방과후 활동에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의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분석한 Huston과 Wright(1999)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나이가 들면서 방과후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패

턴이 달라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이것이 단순히 다른 활동으로 대체(displacement)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즉 TV를 덜 시청한다고 하여서 친구와 밖에서 노는 활동이 더 많아진다고거나 학문적인 활동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과후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입증된 바는 없으나 사회인으로서 적절한 지적 발달을 보이며, 사회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회적 성숙(이채성, 김정희, 이성진, 1976)은 아동의 행동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아동의 사회적 성숙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과후의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방과후 활동에서의 차이나 사회적 발달에서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서, Galambos와 Maggs(1991)는 비행집단 아동의 낮은 충동통제(impulse control)와 조절력(mastery)이 그들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한 바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과 수입수준에 따라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Huston 등, 1999; Fuligni & Stevenson, 1995; Posner Vandell, 1999). 아동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환경의 질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만화영화나 일반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Huston et al., 1999),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과외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며, TV 시청을 덜하고 혼자서 오락을 하는 시간이 더 적었다(Fuligni & Stevenson, 1995; Posner & Vandell, 1999).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부모의 감독(monitoring)이나 이웃의 안전성 같은 요인도 아동의 방과후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Pettit 등,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청소년이 방과후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와 학업성취나 사회적 행동간의 직접적인 연결은 어렵지만, 청소년 및 가족의 특성에 따라 방과후 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

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구미시에 위치한 남중학교와 여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817명(남: 392명, 여: 425명)의 학생들과 그 부모,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중졸 이하가 12.5%, 고졸 52.0%, 대졸이상이 35.5%이었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중졸이하가 22.0%, 고졸 60.9%, 대졸이상이 17.1%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대다수(93.4%)가 초혼의 양친가정으로 2~3 자녀를 둔(88.2%) 핵가족(85.3%)이 대부분이었다. 가정의 수입은 150만원 미만이 42.3%, 150~250만원 미만이 35.8%, 250만원 이상이 21.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중 41.8%가 성인이나 나이 많은 형제의 보살핌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자기보호 청소년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자신의 성취동기, 자존감, 충동통제력 및 조절력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어머니들에게는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자녀의 감독정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지역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각 청소년의 담임선생님에게 학생들의 행동을 평정하게 하였다. 또한 학업성적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과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발달 :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학업 성적, 학교생활 적응, 그리고 학업 성취동기를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학업성적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과목의 1학기말 성적을 반별로 T점수로 환산한 후 이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 적응행동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장영애(1986)의 사회 정서적 발달평정척도를 참조하여 제작되었는데 교사로 하여금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학업 성취동기는 노명희와 이숙(1991)이 사용한 성취동기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청소년이 5점 평정척도로 답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의 긍정적 사회적 발달로서 자존감을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는데, 이는 김경희(1998)가 사용한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긍정적 사회행동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사회행동의 측정을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 척도(김선희와 김경연, 1998)에서 공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골라 수정 제작하였으며, 5점 척도로 교사가 평정하게 하였다.

### 2)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도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충동 통제력과 조절력에 관한 문항들에 대해 청소년이 5단계로 평정하게 하였다. 충동 통제는 청소년들의 충동적, 폭력적, 그리고 분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조절력은 청소년들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Patton과 Noller(1989)이 개발한 SIQYA(the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를 기초로 문항들이 작성되었다.

### 3)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들(Bell, 1997; Fuligni 등, 1995; Marshall 등, 1997; Petit 등, 1999; Posner & Vandell, 1999; Richards & Duckett, 1994; 김선희, 1996)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방과후 생활을 포괄 할 수 있도록 총 12개의 활동범주를 선택하였다. 각 활동범주

에 대해 청소년들은 5점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답하게 하였다.

### 4) 부모 및 가족 특성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예를 들면 숙제가 있는지 혹은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묻는다. 이 문항들은 선행연구(Steinberg, 1986; Pettit et al, 1999)를 기초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작성되었고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을 이용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환경의 안전성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이선경과 이재연(1998)이 사용했던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의 '온정-수용' 요인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Steinberg와 그의 동료들(1989)이 사용했던 측정방법에 기초하여 작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도구의 종류와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 51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후 수정·검토된 연구도구를

<표 1> 연구도구의 종류와 도구의 신뢰도 (N=817)

영역	응답자	신뢰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적응	.65
	학업성취동기	.63
사회적 발달	자존감	.82
	공격성	.90
심리적 성숙도	충동통제력	.68
	조절력	.67
부모 및 가족 특성	정서적 지지	.85
	통제	.74
	감독	.84
	주거안전도	.67

사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소년, 가족 및 이웃의 관련 변인이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변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주로 하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자들이 방과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학원가기와 TV 시청이었고, 가장 적게 하는 활동은 애완동물 기르기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였다.

각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교차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과후 활동에 가장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임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독서하기, 집안에서 놀기, 집밖에서 놀기, PC방이나 오락실 가기를 더 많이 하는데 비해서, 집안일이나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를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활동은 독서하기와 집밖에서 놀기, 학원가기이었는데, 가정의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들은 독서하기와 학원가기를 가장 적게 한 반면 집밖에서 놀기는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광주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보다 중소도시인 구미에서 공부하기는 더 많고 TV시청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에 성인이나 나이든 형제의 보호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자기보호 청소년들은 독서는 더 많이 하는데 비해 학원은 더 적게 다녔으며, 비취업모 가정의 자녀가 더 집안에서 많이 놀고, 낮잠이나 간식먹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명명척도의 자료분석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부모 변인이나 청소년의 심리적 성숙도와 같이 연속척도로 점수화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Posner & Vandell, 1999)를 기초로 방과후 활동 12개를 4개의 활동범주, 즉 학문적 활동(공부하기, 독서하기, 학원가기), 실내에서의 활동(TV 시

<표 2> 방과후 활동의 빈도 및 퍼센트

( ) %

활동	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계
공부	35( 4.40)	165(20.75)	375(47.17)	163(20.50)	57( 7.17)	795(100)	
독서	38( 4.79)	150(18.92)	314(39.60)	198(24.97)	93(11.73)	793(100)	
TV 시청	21( 2.64)	75( 9.45)	119(14.99)	284(35.77)	295(37.15)	794(100)	
집에서 놀기	81(10.20)	173(21.79)	194(24.43)	198(24.94)	148(18.64)	794(100)	
집안일 하기	47( 5.94)	169(21.37)	334(42.23)	154(19.47)	87(11.00)	791(100)	
집밖에서 놀기	165(20.86)	293(37.04)	195(24.65)	101(12.77)	67( 8.47)	791(100)	
친구집 놀러가기	124(15.66)	258(32.20)	253(31.94)	123(15.53)	43( 4.29)	792(100)	
학원가기	196(24.87)	36( 4.57)	27( 3.05)	67( 8.50)	462(58.63)	788(100)	
오락실, PC방가기	190(24.02)	170(21.49)	269(46.65)	120(15.17)	42( 5.31)	791(100)	
배회하기	220(27.81)	267(33.75)	187(23.64)	86(10.87)	31( 3.92)	791(100)	
낮잠, 목욕, 간식	41( 5.17)	80(10.09)	220(27.74)	276(34.80)	176(22.19)	793(100)	
애완동물돌보기	549(70.47)	64( 6.22)	72( 9.24)	38( 4.88)	56( 7.19)	779(100)	

〈표 3〉 방과후 활동과 관련 변인간의 교차분석 결과 요약표

활동 \ 변인	성별	자기보호	월수입	모취업	지역
공부	4.34	2.49	28.38	8.66	16.98*
독서	13.85**	10.16*	42.31*	2.16	7.21
TV시청	6.13	1.74	17.47	2.31	23.17**
집에서놀이	95.31**	1.72	27.38	14.58**	8.45
집안일하기	10.07*	.57	22.60	8.83	13.51
집밖에서놀이	67.31**	4.12	45.85*	2.51	9.30
친구집가기	8.06	3.40	32.40	1.79	4.48
학원가기	2.70	24.47**	76.72**	.68	6.36
오락실PC방	80.66**	4.70	29.70	1.58	7.41
배회하기	32.14**	4.90	28.02	5.58	8.75
낮잠목욕간식	5.74	1.62	20.79	14.34**	7.15
애완동물돌보기	8.96	2.93	19.21	2.49	9.00

\* p&lt;.05 \*\* p&lt;.01

청하기, 집안에서 놀기, 낮잠, 간식, 목욕하기), 실외에서의 활동(집밖에서의 놀기, 친구집에 놀러가기, 오락실 가기), 허드렛일(집안일 하기,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 애완동물 돌보기)로 묶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부나 독서, 학원 수강과 같은 학문적인 활동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많이 지지하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독할수록,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충동통제력과 조절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이나 집안에서 놀기, 간식먹기 등과 같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부모의 통

제가 높을수록 많이 이루어지나, 청소년의 충동통제력과 조절력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충동적이고 조절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실내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실외활동과 의의있게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조절력이었는데,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많이 통제할수록 그리고 청소년들이 상황에 계획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조절력이 약할수록 실외 활동, 즉 집밖에서 놀기, 친구집에 놀러가기, 오락실이나 PC방 가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맥락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광주, 부산, 구미 지역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얼마나

〈표 4〉 방과후 활동범주와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활동					
		학문적 활동	실내 활동	실외 활동	허드렛일	
아동변인	충동통제력	N=776	.168**	-.094**	-.007	.016
	조절력	N=777	.290**	-.159**	-.276**	-.056
부모변인	정서적지지	N=778	.189**	.070	.023	.051
	행동통제	N=763	.120**	.154**	.186**	.058
	감독	N=652	.171**	.031	-.043	-.033
환경안전성		N=689	.000	.049	.041	.042

\* p&lt;.05 \*\* p&lt;.01



안전하다고 지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세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다변량분석 결과에서 실내활동 ( $F=8.16, p<.01$ )에서만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광주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이(광주: 10.91, 부산: 11.13) 구미지역의 청소년들(구미: 10.15)보다 실내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2. 방과후 활동범주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로서 학교적응, 학업성취동

기, 학업성적,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로서의 자존감과 부정적인 사회적 발달로서의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표 5>의 상관계수를 기초로 하여 각 종속변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성취동기에 관한 결과는 <표 7>, 학업성취에 관한 결과는 <표 8>, 자존감 발달에 관한 결과는 <표 9>, 공격성에 관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기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문적 활동( $\beta=.200, p<.001$ ), 실외활동( $\beta=-.134, p<.001$ ), 부모의 정서적 지지( $\beta=.087,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과후에

<표 5>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충동통제	조절력	지지	통제	감독	학문활동	실내활동	실외활동	허드렛일
아동의 특성	충동통제	1.00	.	.	.	.	.	.	.	.
	조절력	.24**	1.00	.	.	.	.	.	.	.
부모의 특성	지지	.13**	.30**	1.00	.	.	.	.	.	.
	통제	.11**	.07	.25**	1.00	.	.	.	.	.
	감독	.02	.13**	.19**	.15**	1.00	.	.	.	.
방과후 활동	학문활동	.17**	.29**	.19**	.12**	.17**	1.00	.	.	.
	실내활동	-.09**	-.16**	.07	.15**	.03	-.01	1.00	.	.
	실외활동	-.01	-.28**	.02	.19**	-.04	.02	.34**	1.00	.
	허드렛일	.02	-.06	.05	.06	-.03	-.05	.26**	.30**	1.00
학업 성취	학교적응	.09**	.16	.15**	.00	.09*	.21**	.00	-.13**	-.10**
	성취동기	-.06	.29**	.29**	.16**	.11**	.23**	.07	-.08*	.01
	성적	.12**	.20**	.10**	-.07	.17**	.42**	-.07	-.18**	-.20**
사회적 발달	자존감	.13**	.28**	.32**	.08*	.13**	.23**	.02	.08*	-.09*
	공격성	-.12**	-.13*	-.05	.06	-.06	-.17**	.06	.17**	.09*

\*  $p<.05$  \*\*  $p<.01$

<표 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F	B	$\beta$
학문적 활동	.200	.040	22.98***	.491	.200
실외활동	.241	.058	16.93***	-.299	-.134
부모지지	.255	.065	12.80***	-.303	.087

\*\*\*  $p<.001$

〈표 7〉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F	B	$\beta$
조절력	.272	.074	43.70***	.272	.272
부모지지	.318	.101	30.72***	.105	.172
학문적 활동	.351	.123	25.41***	.241	.154
실내활동	.365	.134	20.93***	.175	.106
실외활동	.378	.143	18.10***	-.155	-.108
부모통제	.386	.149	15.81***	5.199E-02	.082

\*\*\* p&lt;.001

〈표 8〉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F	B	$\beta$
학문적 활동	.444	.197	137.00***	18.21	.444
실외활동	.494	.244	89.67***	-8.07	-.216
허드렛 일	.513	.263	66.03***	-6.41	-.146
부모감독	.520	.271	51.54***	1.19	.092
부모통제	.530	.281	43.22***	-1.67	-.101

\*\*\* p&lt;.001

공부하기, 독서하기나 학원수강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집밖에서 노는 것은 적게 하며, 부모가 정서적으로 많이 지지해줄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 초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부모의 특성에 비해 방과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청소년의 자기 조절력( $\beta=.272$ ,  $p<.001$ ), 부모의 정서적 지지( $\beta=.172$ ,  $p<.001$ ), 학문적 활동( $\beta=.154$ ,  $p<.001$ ), 실내활동( $\beta=.106$ ,  $p<.001$ ), 실외활동( $\beta=-.108$ ,  $p<.001$ ), 부모의 통제( $\beta=.082$ ,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즉 청소년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고, 부모가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방과후에 학업에 관련된 활동과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많이 하되 집밖에서 노는 활동은 적게 할수록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았다.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자신의 심리적 성숙도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방과후 활동 변인을 첨가하면 42% 만큼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학업성적에는 학문적 활동( $\beta=-.444$ ,  $p<.001$ ), 실외활동( $\beta=-.216$ ,  $p<.001$ ), 허드렛일( $\beta=-.146$ ,  $p<.001$ ), 부모의 감독( $\beta=.092$ ,  $p<.001$ )과 통제( $\beta=-.101$ ,  $p<.001$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8〉 참조). 청소년이 방과후에 학업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되 집밖에서 노는 활동이나 집안일이나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와 같은 활동은 적게 할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에 대한 방과후 활동의 설명력이 26%라는 것은 다른 종속변인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방과후 활동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많이 감독하면서도 통제는 적게 할수록 학업성적이 높아졌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자존감 발달에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beta=.324$ ,  $p<.001$ ), 청소년의 조절력( $\beta=.178$ ,  $p<.001$ ), 실외활동( $\beta=.146$ ,  $p<.001$ ), 허드렛일( $\beta=-.141$ ,  $p<.001$ ), 학문적 활동

〈표 9〉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F	B	$\beta$
부모지지	.324	.105	63.16***	.253	.324
조절력	.366	.134	41.64***	.223	.178
실외활동	.391	.153	32.45***	.264	.146
허드렛일	.414	.171	27.71***	-.302	-.141
학문적 활동	.426	.181	23.83***	.221	.110

\*\*\* p&lt;.001

〈표 10〉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예측변인	R	R <sup>2</sup>	F	B	$\beta$
실외활동	.191	.036	20.84***	.273	.191
학문적 활동	.258	.066	19.66***	-.274	-.174
충동 통제력	.274	.075	14.90***	-9.6E-02	-.094

\*\*\* p&lt;.001

( $\beta=.110$ ,  $p<.001$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9〉 참조). 부모가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청소년 자신의 조절력이 높으며, 방과후에 집밖에서의 활동과 학업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허드렛일은 적게 할 때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서 청소년들의 자존감 발달에는 자신의 조절력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방과후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가가 자존감 발달에 대한 설명력을 4.7%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방과후의 실외활동( $\beta=.191$ ,  $p<.001$ ), 학업활동( $\beta=-.174$ ,  $p<.001$ ), 청소년의 충동통제력( $\beta=-.094$ ,  $p<.001$ )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청소년이 방과후에 집밖에서 많이 놀고 학업에 관련된 활동은 적게 하며 자신의 충동을 잘 통제하지 못할 경우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세 변인의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기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 성취나 사회적 발달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특성 이외에도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방과후 학업과 관련된 활

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업성취나 사회적 발달에 모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성취동기에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방과후에 집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적, 그리고 공격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존감의 발달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일하거나 배회하기와 같은 허드렛일은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자존감 발달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아동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사회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의 요약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방과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학원가기와 TV 시청이었고, 가장 적게 하는 활동은 애완동물 돌보기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이

었다. 이는 Posner와 Vandell(199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TV 시청이나 학업이 두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이었고, 허드렛일은 가장 적게 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Posner와 Vandell의 연구에서 과외활동은 가장 적게 하는 활동의 하나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 학원가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었다. 이는 방과후 활동과 용어 해석에서의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문화에서의 과외활동은 글자 그대로 교과목의 활동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의 학원,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거의 학교 공부와 관련된 과외활동이다(전하찬, 1997). Fuligni 등(1995)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아시아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공부에 관련된 활동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공부와 관련된 과외활동인 학원수강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순옥(1996)에 의하면 우리나라들은 학원 수강을 많이하고 있는데, 그 이유중 하나가 방과후에 집에 가도 부모나 성인이 없어서 학원을 방과후 보호의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방과후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기관이 부족하고, 학업에 많은 비중을 두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 비해 학원가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성과 자기보호 유무, 사회적 성숙도,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취업유무, 정서적 지지, 행동통제와 감독, 그리고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에 따른 방과후 활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독서하기, 집안에서 놀기, 집밖에서 놀기, PC 방 가기를 더 많이 하고, 여자는 집안 일하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는 TV 시청이나 스포츠 등의 과외활동을 더 많이하고, 여자는 학문적인 활동, 사교활동, 집안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 선행연구들(Posner & Vandell, 1999; Huston & Wright, 1999; Fuligni 등, 1995)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즉 남아들이 스포츠와 관련된 놀이를 하

는 집밖에서의 놀이를 많이 하고, 여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한다는 점은 일치하나, 다른 활동에서의 성차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과후 성인이나 나이든 형제의 보호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자기보호 아동들은 독서를 더 많이 하고 학원을 적게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순옥(1996)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원을 방과후 보호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어느 정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기 때문일 수 있고, 자기보호 아동들의 생활 환경을 집안으로 제한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자기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에서 더 자세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신의 사회적 성숙도 역시 방과후 활동과 관계가 있었는데 충동통제력과 조절력이 높을수록 학문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만, 충동적이고 조절력이 약할수록 실내활동과 실외활동을 많이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조절력이 학업성적이나 사회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Mischel, Shoda, 1988; Shoda 등, 1990), 그리고 사회적 문제행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Caspi 등, 1995; Fox, 1989; Rothbart 등 1994)는 선행연구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

가정의 월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방과후에 집밖에서 놀이가 가장 많았고, 독서하기와 학원가기를 가장 적게 하였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감독이 없거나 조직적으로 짜여 있지 않은 활동에 더 참여하며(Mdeirch 등, 1982),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더 공부를 많이하고, TV 시청이나 오락을 덜 한다고 한 Fuligni 등(1995)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문제로 학원을 갈 수 없고, 집안에 많은 책이나 컴퓨터 게임기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밖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Marshall 등(1977)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서 방과후 경험이 내면적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사례수가 적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

나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성인의 감독없이 집밖에서 친구들과 휩쓸려 지내는 일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탈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예언할 수 있으므로(Pettit 등, 1999; 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후 생활과 적응에 관한 추후 연구들을 통해 방과후 생활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다른 방과후 활동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집안에서는 노는 것이나, 집에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은 비취업모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감독 또한 방과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지적한 선행연구들(Posner & Vandell, 1999; Pettit 등, 1977; 1999; Steinberg, 1986)을 지지하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학문적 활동과 부모의 행동통제는 학문적 활동, 실내 활동, 실외활동과 그리고 부모의 감독은 학문적 활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은 바로 학문적 활동이었다. 이옥(199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활동내용 중 첫 번째가 바로 숙제 지도 및 학습보충지도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공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환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Galambos & Garbarino, 1982; 1983; 1984; Pettit 등, 1999)에서는 안전한 지역의 아동들이 실외활동을 많이 하고, 덜 안전한 지역의 아이들은 실내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각에 관계없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TV를 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들고 있는 현 사회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과후 활동을 4개의 범주로 묶어서 실시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중소도시 청소년들보다 대도시 청소년들이 실내활동을 더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의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실내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Galambos와 Garbarino(1982)와 일치한다.

방과후 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 학업 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학교적응, 성취동기, 성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예언하는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은 방과후에 학업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집밖에서 노는 활동은 적게 하며, 부모가 정서적으로 많이 지지해 주었다. 한편, 청소년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며, 방과후에 학문적 활동과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많이 하되 집밖에서 노는 활동은 적게하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많이 통제할수록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에 학업에 관련된 활동은 많이 하되 집밖에서 놀거나 허드렛일을 적게 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감독은 많이 하되 통제는 적게 할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감독정도,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도와 함께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성적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방과후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활동에 참여했을 때 성적이 좋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Huston 등, 1999; Pettit 등, 1997; Posner & Vandell, 1999)들과 방과후에 바깥놀이에 시간을 많이 보냈을 때와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았을 때(Fuligni & Stevenson, 1995; Long & Long, 1983; Posner & Vandell, 1994; 1999; Huston 등, 1999) 성적이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한 연구결과들을 지지하였다.

사회적 발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의 자존감과 부정적 측면의 공격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수준과 청소년의 조절력 수준이 높고, 방과후에 집밖에서 노는 활동이나 허드렛일을 적게 할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청소년이 방과후에 집밖에서 많이 놀고, 공부를 적게 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힘이 약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활동과 사회적 발달간의 관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 Burton 등, 1995; Patterson 등, 1991; Posner & Vandell, 1994; 1999)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고 방과후 활동법주들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집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행동은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를 높인다는 Galambos와 Maggs(1991), Steinberg(1986)의 연구, 그리고 집안일을 많이 하는 경우,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방해받아서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는 Bell(197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할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기 조절력이 사회적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Fox, 1989; Rothbart, Ahadi & Hershey, 1994)과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본 연구의 대상의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은 방과후에 학원가기와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였고, 이런 방과후 활동은 청소년의 성, 자기보호 유무와 사회적 성숙도,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모의 정서적지지, 행동통제와 감독,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방과후 활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감독정도,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도와 함께 학업성취와 사회적 발달을 예언할 수 있다. 물론 방과후 활동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사회적 발달을 예언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사회적 발달에는 방과후 활동 이외에도 부모가 방과후에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감독하는지,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행동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충동통제력이나 조절력과 같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함께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생 또는 완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여러 가지 변인들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사회적 발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의 생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의 실태와 그 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권일남(2000). 초·중·고의 방과후 활동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97-112.
- 김경희(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희(1996). 아동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아동연구, 5, 40-52.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계학회지, 17(1), 156-165.
- 노명희, 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서영숙, 박영애, 허정경(2000).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비교. 아동학회지, 21(1), 141-161.
- 오치선, 권일남(1999).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실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리서치아카데미논총, 2, 62.
- 이선경,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영자, 이종숙, 이옥, 신은수, 이정옥(1999).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혼합연령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연구: 정서지능발달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3-24.
- 이옥(1993). 도시지역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양육승(편), 탁아연구 11, 7-32. 서울: 양서원.
- 전하찬(1997).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의 필요성과 대

- 책. *교육진흥*, 36, 118-131.
- 한명희(1992).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순옥(1996).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탁아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263-280.
- Belle, D. (1997). Varieties of self-care: a qualitative look at children's experiences in the after-school hours.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78-496.
- Burton, L. M., Allison, K. W., & Obeidallah, D. (1995). Social context and adolescence: perspective on development among inner-city African-American teens. IN L. C. Crockett & A. C. Cruter (Eds.), *Pathways through adolescence* (pp. 119-138). Hillsdale, NJ: Erlbaum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 55-68.
- Fox, N. A. (1989).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64-372.
- Fulgini, A. J. & Stevenson, H. W. (1995). Time use and mathematics achievement among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6, 830-842.
- Galambos, N. L. & Garbarino, J. (1982). Identifying the missing links in the study of latchkey children. Washington, D.C.: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August.
- Galambos, N. L. & Garbarino, J. (1983). Identifying the missing links in the study of latchkey children. *Children Today*, 12(4), 2-4, 40-41.
- Galambos, N. L. & Garbarino, J. (1984).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rural sett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2), 227-231.
- Galambos, N. L. & Maggs, J. (1991). Children in self-care: figures facts, and fiction. In J. V. Lerner & N. L. Galambos (Eds.), *Employ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pp. 131-157). New York: Garland.
- Guerney, L. (1991). A survey of self-supports and social supports of self-care children.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5(4), 243-254.
- Huston, A. C. & Wright, J. C. (1999). How young children spend their time: television and other activ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4), 912-925.
- Long, T. J., & Long, L. (1982). *Latchkey children: The child's view of self-care*. Arlington, VA: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Documents Reproduction Service.
- Long, T. J., & Long, L. (1983). *Latchkey children*. Urbana, IL: ERIC Clearing 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Marshall, N. L. Coll, C. G., Marx, F., McCartney, K., Keefe, N. & Ruh, J. (1997) After-school time and children's behavioral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97-514.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Muller, C. et. al. (1991). *Defying statistics or latchkey children in the late '80s: Family composition, working mothers and after school supervision*. Washington, DC: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Patton, W. & Noller, P. (1989). Self-perception in adolescence: personality questionnaire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3, 19-32.
- Patterson, C., Vaden, N., Griesler, P., & Kupersmidt, J. (1991). Income level, gender, ethnicity, and household composition as predictors of children's peer companionship outside of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447-465.

- Peterson, L. & Magrab, P. (1989).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Children on their ow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2-7.
-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Meece, D. W. (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0*(3), 768-778.
-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income's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Posner, J. K. & Vandell, D. L. (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68-879.
- Richards, M. H. & Duckett, E. (1994).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in early adolescent daily experience with and without parents. *Child Development, 65*, 225-236.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48-967.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 1072-1085.
- Steinberg, L. (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33-439.
-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